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 하였습니다.



2018년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가난한 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대표전화 02.940.1500/ 팩스 02.940.1777 후원회 02.940.1501

[www.sgbokji.or.kr](http://www.sgbokji.or.kr)

# “가난함과 가난한 이, 미소한 이들을 사랑하시오.”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님

주님!  
 성가복지병원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보금자리로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저희가 늘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을  
 바로 예수님으로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든지  
 변덕스러운 갖가지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 줌으로써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냉대와 무례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예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높은 소명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  
 성가복지병원을 도와주시는 모든 은인들과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축복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 Contents 2018



### 여는 글

08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5-37)으로 살기\_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

### 강생의 자리

12 사랑의 기적\_ 영양사 임정수  
 15 내가 섬겨야 할 주인\_ 원목실 권 올리엣다 수녀  
 18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체험\_ 퇴원환자 공숙희님

### 나눔의 기쁨

22 초대받은 자리에서 얻은 기쁨\_ 박희영  
 25 신부님의 편지\_ 노성기 신부님  
 29 마음이\_ 봉사동아리 ‘마음이’  
 31 하느님은 사랑이시다\_ 간호과 원 귀임마리아 수녀

### 감사의 마음

36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고 다독여 준 복지병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걷다\_ 퇴원환자 양○○님  
 38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다\_ 퇴원환자 알리크님 누나  
 41 중국에서 보낸 편지\_ 퇴원환자 이정자님  
 42 은혜로우신 수녀님께\_ 퇴원환자 손태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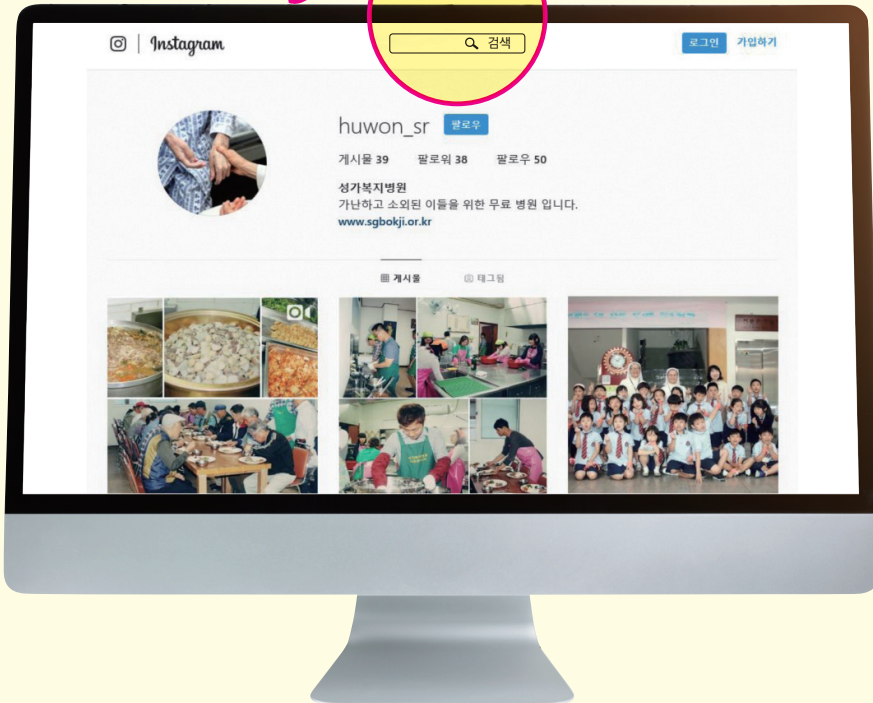
### 성가병원 소식

44 사진으로 보는 병원 소식

### 알려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으로 성가복지병원 만나기

성가복지병원을 검색하세요~



# 성가복지병원 소개



## 설립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을 지향하는 의료복지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운영방침

1. 성가소비녀회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복지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모든 의료서비스(입원, 외래)는 무료로 한다.
3.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4. 사회 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 진료대상자

차상위 계층,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암보험, 생명보험 가입자 제외)



### 운영현황

1. 직원현황 :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2. 자원봉사활동 분야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 차량(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상담(정서지원)
  - 영양과(설거지, 배식 등)
  - 호스피스
3. 정부 지원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4. 병상수 : 2병동(21실, 72병상)
  - 5층(8실, 29병상) :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
  - 6층(13실, 43병상) : 단기 환자 병동
5.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한방과(내·외과를 제외한 과는 자원봉사 의사들이 진료함)

### 사업안내

- 진료(외래, 입원)
- 호스피스
- 타기관 연계
- 쉼터 운영
- 무료급식소(매주 화·토요일 점심)



여는 글





#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5-37)으로 살기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

어느 화요일 오후 안과진료 봉사 선생님은 진료를 마치시고, 손수 차트(환자기록)를 들고 내려오셔서 의무기록실에 진료가 끝났다고 인사하셨다. 갑자기 사회사업과 수녀님의 손길이 바빠지셨다. 우선 안과진료 봉사선생님께 멀리 경기도 금촌에서 온 환자가 있다고 알리고, 병원에 처음 왔으니 기본문진 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기꺼이 '예, 수녀님' 흔쾌히 대답하시고 진료실로 올라가셨다.

그 순간 나는 착한사마리아인을 떠올렸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가 떠올랐다.

우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이다.

아주 다양한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다. 어쩔 이들은 '출생부터 삶의 출발선이 달랐던 사람들,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이 사회의 복잡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가지 못해서, 경쟁해야 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온 몸이 무방비인 상태로 살아가는 별거벗은 이들인 것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의 접촉과 위로이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치유된다.

요한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멈추어 서서 고통 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멈추어 섬과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을 느끼는 쪽으로 이동하라"고 조언한다. 즉 멈추어 서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는 자세로 행동하라 하신다.

'세계 난민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중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기회"라고 강조하셨는데 근래에 들어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감이 요구된다.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는 사람이 최후심판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마태 25,31-46 참조) 쉽지가 않다.

28년 무료병원의 역사와 함께 요즘 갈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국가의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시점에 성가복지병원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나는 28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된

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길가에서 발견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는지를 말이다.

사마리아인은 발견한 즉시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말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주길 부탁하고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곳에 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병든 곳을 치료해 주고, 이발과 목욕을 하게 한 후 옷과 신발 등 식사를 제공하는 단순한 행위 안에 하느님의 은총을 담아냄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착한사마리아인이란 “그 중심에 자신이 아닌 인생 길에서 만난, 우리에게 도전되는,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두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하셨다. 멈추어 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28년 전에 교회 안팎의 염려와 우려 속에 무료병원을 시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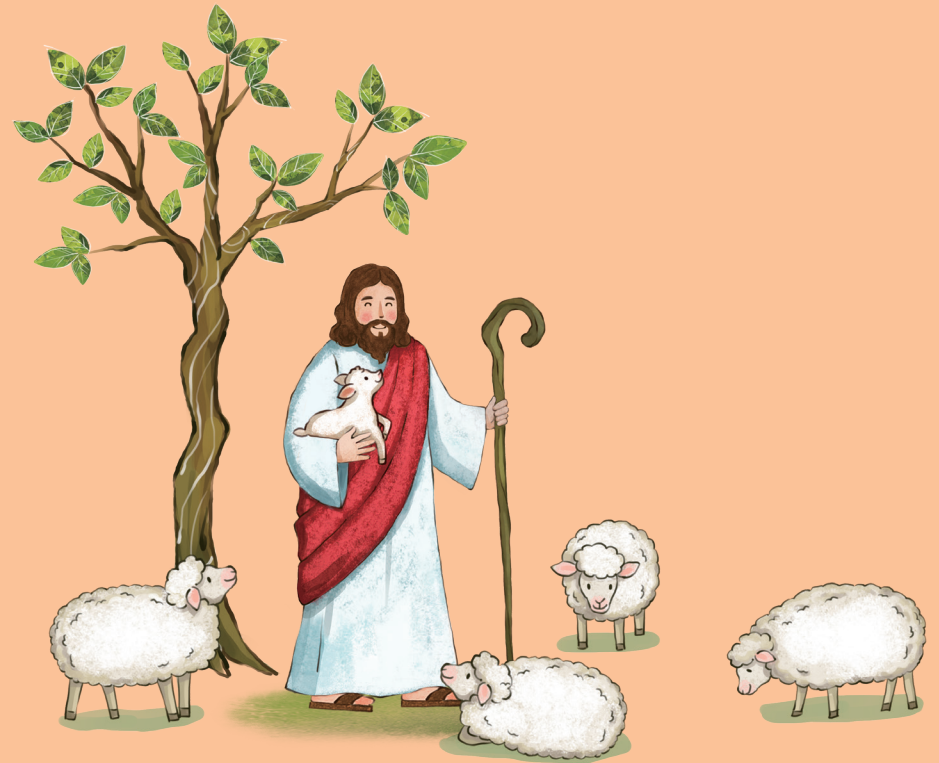
였는데 2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떠한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첫 마음처럼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인 우리의 진료대상자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2018년도 한 해의 끝자락이다. 성가복지병원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 위하여 힘과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섰으면 한다.

평범한 일상이 소원인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 성가복지병원을 아끼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믿고 힘차게 발을 내디터 본다.



## 강생의 자리



# 사랑의 기적

글 · 영양사 임정수

성가복지병원 환자분들과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제가 2002년 1월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17년 근무 중이네요. 20대 때 입사해서 지금 40대가 됐으니...



참 오래 근무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성가복지병원 영양과에 들어왔을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지하에 있는 주방을 새로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돼서 너무나 깨끗했던 파란 바닥이 어찌나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던지.....솔직히 그 때, 주방모습에 반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의 주방의 깨끗함은 단지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사랑과 기적의 기운들이 절 이 끌었던 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은 하루 근무의 시작을 1층 성당에 모여 아침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중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이 기도문의 구절구절이 무슨 말인지 뜻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수녀님들과 다른 직원들이 하시니까 따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사한지 3개월 쯤 됐을 때, 메뉴에 사용할 두부 2판을 주문하지 못해 메뉴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두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근 두부공장에 배달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됐을 텐데, 점심식사 후 오후 2시가 다 됐을 때 두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달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방 안에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



의 식재료들을 뒤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해하고 있는 그 때, 인근 송인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두부 2판을 갖고 영양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부를 받아들면서 문제가 해결된 마음이 커 90도로 머리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사를 받으며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이 무료병원이라면서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도 몰랐는데, 오늘 어떤 손님이랑 얘기하면서 두부가 안 팔려서 저 아까운거 설까 봐 걱정하니까, 여기 가져다주면 받아 줄 거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뭘야~~나 두부 필



요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는데.....기적이네~기적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라는 구절에서는 '히히~~ 주님~! 어제 저 이거 체험 했잖아요~~^--^' 라고 혼자 뿌듯해하며, 흐뭇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시작으로 성가복지병원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기적들 안에는 항상 타인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세상에는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후원자분들의 나누려는 마음과 365일 매일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의 예쁜 마음이 합쳐져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기적체험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여기에 저희 영양과에서 매일 아침 바치

는 '하루 일을 시작하는 기도'로 작은 정성의 마음을 더해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 요셉님을 모시고 성녀 마르타의 도움을 청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랑과 정성으로 다듬고 씻고, 썰고, 찌고, 볶고, 무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정성, 희생, 시간, 사랑, 기쁨을 봉헌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준비한 음식에 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섬겨야 할 주인

글 · 원목실 권 올리엠타 수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요셉 형제님 세례식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지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목마른 이, 나그네, 헐벗고 병든 이, 돌보아 줄 사람 없는 이, 감옥에 갇힌 이 등 모든 무의무탁한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수도회 설립자 성 신부님께서도 "여기 고아(환자) 하나하나를 감실(監室)로 알고 예수님으로 잘 모시시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성가복지병원이며, 환자들의 영적 돌봄을 주로 하는 곳이 원목소임이다.

원목 사도직을 소임으로 받았을 때 나에게 그것은 복음이었다. 가장 가난했던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만짐으로써 환자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날 수 있

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일생동안 삶의 고통중에 있다가 마지막 자리를 찾으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늘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분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

주인공은 직장암 말기로 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병실 방문 가셨던 외국수녀님 소개로 본 병원에 입원하신 요셉 형제님이다. 방문 가서 첫 인사를 나누던 중 영성체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청하셨다. 형제님은 어릴 적 가톨릭계 유치원을 다니셨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은 요셉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세례는 받지 않으셨고, 외할머니님과 9살까지 성당을 다녔을 뿐이었다.

형제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탓에 어린 시절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과, 사업에 거듭 실패하면서 과음하고 가족들에게 가혹한 말을

했던 것 등. 많은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 무엇보다 형제님 스스로가 잘못된 삶을 살아오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웠다. 입원 당시에는 부인을 함부로 대하고 간호사들에게 까다롭게 하며 요구사항도 많았다.

그럼에도 기도, 교리 공부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자주 와서 하느님 얘기를 많이 들려 달라고 부탁하곤 하셨다. 어느 날 형제님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숨 쉬는 것마저도 죄스럽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더 많이 괴로워 하셨다. 이렇듯 죄에 억눌려 힘들어 하시는 형제님과 대화하면서 ‘하느님은 자비에 지치지 않으시며, 형제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는 분’ 이심을 자주 말씀드렸다. 그러던 중 형제님은 내 죄를 뉘우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후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셨다. 처음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6월의 어느 날 형제님은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표현하시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청하셨고, 고대하던 성체를 모시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하셨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루아침에 행동을 바꿀 수는 없으나, 잘못된 마음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에는 집사람과 다투고 나면 짜증이 났고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했는데 내 잘못임을 깨닫고는 금방 후회했어요. 이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용서 청해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을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올라 작은 도움에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던 형제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정성들여

빛으신 작품이며, 축복 속에 태어나서 존중받으며 살아야 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호스피스 환자들 중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임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에게 성모님의 마음으로 눈 마주치고 손잡아 주고, 무엇을 해 주려 하기보다 그저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소임. 그리고 원목자로서 한 영혼에게 하느님을 알려드리고 가족과 화해하여 편안하게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몫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체험

글 · 퇴원환자 공숙희님



우리의 삶에서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내 경우가 그랬다. 4월 초 바뀐 계절에 대비하여 옷장을 정리하고 장롱에 넣어 두었던 봄옷들을 꺼내 세탁을 한 뒤 베란다에 널던 중 의자에서 떨어져 좌측 고관절에 골절을 입은 것이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밤을 지냈는데 통증이 더욱 심해져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가니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이 내렸다. 수술을 하고 일주일 이 지났는데 갑자기 퇴원을 하라기에 이유를 물으니 환자가 밀려 병실이 부족하니 나가란다. 억지로 밀어내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 실밥도 채 못 뽑고 퇴원을 하게 되어 방향을 잃고 갈피를 못 잡다가 발길이 닿은 곳이 성가복지병원이다. 몇 년 전까지 이 병원 근처에 살았기에 이곳에 병

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종교도 다르고 해서 확신은 없었지만, 워낙 다급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의외로 선뜻 입원이 허락되어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이곳은 수녀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랑과 봉사의 산실이다. 아름답고 고운 수녀님들의 미소속의 기도는 피폐해진 환자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독거인으로 지내면서 항상 외로움에 젖어 살아온 나였기에 생일 같은 건 아예 잊어버리고 산지가 오래인데 생일 날 아침에 이곳에서 미역국과 생일카드를 받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얼마나 예쁜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가슴에 잔잔히 여운으로 남는 기억



들이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담으시던 선함과 겸손이 묻어나던 수사님, 사제를 꿈꾸며 환자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던 학사님들, 직장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일이면 환자들의 방을 일일이 다니며 쓰레기를 치워 주시던 수 많은 봉사자들의 땀방울...

같은 병실의 환우 한 분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사회사업과 수녀님이 자주 병실을 오가면서 식사대용의 음식을 권유하기도 한다. 간호사님들도 본인을 위해 구입한 과일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수시로 가져와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렇게 환자 한명 한명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곳, 봉사자들의 땀방울과 정성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성가복지병원이다.

나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도움 같은 건 받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왔기에 처음에는 모든 이들의 배려가 어색하고 낯설기



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진심이 마음에 와 닿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평안 속에서 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담당 주치의이신 원장님께서서는 의술은 물론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환자들의 기분까지도 신경을 쓰신다. 웃음소리가 쾌활하신 박 과장님은 가끔씩 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교훈적인 말씀으로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곤 하신다. 나는 현재 고관절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워커의 도움으로 도서실도 오가고 있으며, 재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손목터널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으로 잠시 퇴원을 늦춘 상태이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의

료봉사 오시는 정형외과 전문의께 수술을 약속받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이 많이 들었던 학사님들은 이곳을 떠나 페루와 소록도로 봉사를 가게 되는데, 성직자의 길로 가까이 가는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한다.

퇴원 후에는 이곳의 아름다운 분들에게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이웃 사랑 실천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 나눔의 기쁨



## 초대받은 자리에서 얻은 기쁨

글 · 박희영(토마스 아퀴나스)



성가복지병원 봉사의 인연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빈민지역인 ‘빠라나케’를 의료봉사 다녀오게 되었다. 성가복지병원의 필리핀 무료 의료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며, 이곳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의 해외선교 파견지이기도 하다. 현지의 수녀님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을 방문하면서 홍보 및 진료를 위한 건강상태를 파악해 주시어 봉사팀은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수녀님들의 안내를 통해 빈민지역 주민들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상·하수도과 화장실 등 기본생활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고,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2평 남짓해 보이는 곳에서 6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구차한 모습도 기꺼이 보여주었는데, 거주지 방문 중 만난 10대 소년은 잡아온 조그만 물고기 몇 마리를 마치 소꿉놀이 하듯이 아주 적은 양의 물로 씻고 있었는데, 이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남동생 모습은 마치 소박한 시골 풍경 같았다.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청소나 빨래 등은 형제들이 서로 나

누어 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가정집이었다. 이렇게 첫날부터 지역 주민들을 방문하였기에 다음날 진료 때는 그들이 낮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번은 수녀님이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가정에 먹을 것을 가져다가 식구끼리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웃집에 나눠 주고 오더라고 하셨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는 그들의 삶이 단면적으로 보여진 것이라 느껴졌다. 수녀님들께 주민들을 방문하고 도움을 주시려면

차가 없어 많이 불편하시겠다고 하니, 이곳에서 봉사하려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들보다 더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래야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더위에도 선풍기만으로 생활 하며,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는 이틀 동안 현지수녀님들, 한인공동체 통역봉사자들과 함께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하였고, 453명의 환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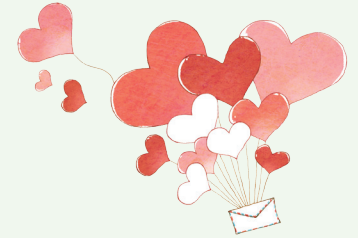


진료소를 찾았다. 진료를 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추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명단을 만들어 현지 수녀님들께 전달하였다. 한국에 온 후 그곳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수녀님들이 그 곳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호전된 환자의 사진 또한 함께 보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도 현지의 취약 계층의 주민들을 방문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수녀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또 진료 시 자신들을 존중하며 대해 준다고 고마워하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초대받은 이 자리가 나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줌에 감사를 드린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감사한 날들이다.

## 신부님의 편지

글 · 목포가톨릭대 총장 노성기 신부님



습니다.

광주 신학교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신학생들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홈페이지를 연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신부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올바른 술 문화와 술을 절제하는 능력도 기른답니다. 신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토요일, 제가 홈페이지에 두 그룹의 신학생들을 특별 초대했습니다. 왜 그 신학생들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복지병원 후원회 담당 수녀님께...

안녕하십니까? 수녀님,

저는 광주가톨릭 대학교 총장 노성기 신부입니다.(~2018년 8월. 재임) 전화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한 그룹은 '개미회'라는 봉사 단체입니다. 개미회는 매년 신학교의 폐지를 1년동안 모아서 판 돈을 가난한 이들이나 단체에 기부합니다. 약



6년 전, 총장 강화시간에 제가 중국 교회에 대한 상황을 신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중국교회는 중국 말로 된 신학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중국교회를 돕기 위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약 5~6년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총장 강화가 끝나고 약 2주 뒤에 개미회 회장이 폐지를 팔아 모은 돈 120만원을 가지고 와서, “총장 신부님, 이 돈을 중국교회 돕는데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겨울방학 때에 저는 우연히 EBS에서 방영한 “천국의 아이들(3부작)”을 봤습니다. 제1부는 필리핀 쓰레기장에서 사는 ‘나이다’ 초등학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저기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신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십시일반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

월달 총장 강화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일부를 보여주고 같이 도와주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는데, ‘빈터’라는 기부동아리 회장이 1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총장 신부님, 그동안 저희 빈터가 모아놓은 돈인데 이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두 그룹의 신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2017년 11월 홈빠에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단돈 2천원, 3천원 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홈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2학년 신학생이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생은 매달 만원씩 기부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날 전화가 와서, “후원자님, 이만원 을 더 보태서 매달 삼만원을 기부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줄 수 있는데요.” “저, 대학생인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원 2학년 신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군입대를 앞둔 신학생들에게 선배들이 동아리나 어떤 모임에서 작은 선물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입대를 앞둔 2학년 후배에게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 후배가 “저한테 줄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그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대림1주일 미사 강론 때에 ‘성가복지병원’ 잡지에 실린 내용과 신학생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림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몇몇 신학생들과 ‘만남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2학년 신학생이 만남의 방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문을 닫고 그냥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 나가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2학년

대표 신학생이었습니다. “저희 2학년이 학급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에는 저희들이 낸 돈 외에도 신부님들이 주신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총장 신부님이 가난한 곳에 기부해주시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희 2학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 주십시오.”

방에 들어와 봉투를 열어보니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가복지병원 후원담당 수녀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후, 학생들의 돈에 제가 마련한 100만원을 보태어 120만원을 성가복지병원 후원계좌에 그날 바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소리 내어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총장강화 등에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신학생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설령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변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고 내가 신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학생들이 철옹성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절대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신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그동안 남몰래 자선을 실천하고 있었고, 또 저를 울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왔던 것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학년 신학생들의 간곡한 부탁처럼, 저는 이 일을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길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2학년 신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학년 신학생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2017년 12월 13일  
노성기 신부 드림

## 봉사자 글 마음이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글 · 봉사동아리 ‘마음이’



+성가복지병원 봉사자 배혜진 이라고 합니다 ^^  
올해 초 설날 특별봉사를 진행하며  
참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듯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여 지내다가  
하루하루 기니를 걱정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가복지병원 봉사팀 이상민입니다.  
어느덧 봉사를 시작하게 된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갔네요~  
매번 올 때마다 반복되는 청소이지만  
언제나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활기찬 ‘마음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봉사하게 된 장은지라고 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봉사자, 후원자 분들의 힘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네요~  
 좋은 경험 하고 가요~



+‘마음이’부팀장 전홍우입니다.  
 사계절 봉사를 하면서 매 계절마다 느낌이  
 다르며, 색깔도 다른 성가복지 병원입니다.  
 선풍기 청소를 할 때도, 유리창 청소를 할 때도  
 한 여름 옥상에서 바닥청소를 할 때도  
 매번 고된 봉사이지만  
 함께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복지병원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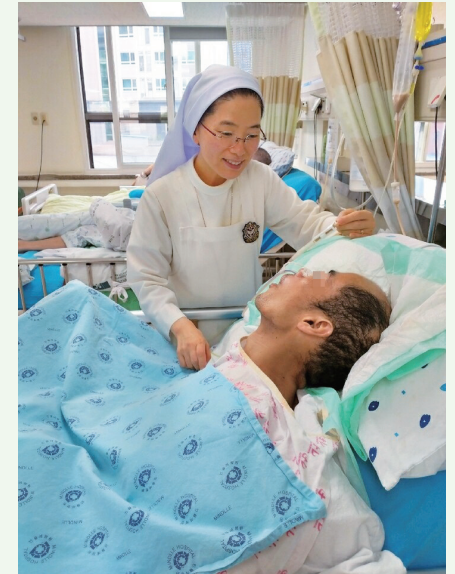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글 · 간호과 원 귀임마리아 수녀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도적권고 ‘복음의 기쁨’에는 “실제로 삶을 가장 잘 즐기는 사람은 안전한 땅에서 떠나 다른이들에게 생명을 소통하는 사명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장소이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며 약속을 하고 떠난 중국 나환자들과의 만남을 잠시 미루고 2년이라는 제약적 시간속에 성가복지병원 소임을 청한데는 복지병원이 우리 수도회의 여러 사도직 중 진정으로 생명을 소통할 수 있는 장소라는 개인적인 믿음에서였습니다.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의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지난 2



년 남짓한 병동에서의 생활은 저에겐 찬란한 은총의 시간들이며 동시에 메마른 사막을 걷는듯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온 다양한 체험들과 환자들에 대한 헌신



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거라는 저의 생각은 처음 대해보는 노숙인 환자분들의 내면의 예민함을 읽어내지 못하여 종종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며 홀로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듯 저는 처음부터 환자분들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알아가야 했습니다.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상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관계, 깊이 감추어진 버려짐과 외로움이라는 종양, 무너져 간 신앙, 용서하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 등을 마주할 때 저는 종종 주님께선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요구하심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가난한 이, 노숙인, 암환자, 외국인 노동자로만 바라본다면 이분들은 저에게 단순히 헤어지면 잊혀질 환자에 불과하지만, 나와 똑같은 그리움을 지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한 존엄한 인간으로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곳 성가복지병원에는 세속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병원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속삭임을 듣게 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되고 그래서 때로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오래된 환자들에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고, 헌신과 사랑으로 환자분들을 돕는 자원 봉사자들의 귀한 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며 모질고 질긴 병과 편견을 묵묵히 견뎌내는 환자분들의 모습 안에서 손상되지 않은 풍요로운 인간성을 발견 할 때 면저는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거칠고 요구 많고 까탈스러운 환자분들의 얼굴표정이 사랑받음, 용서받음, 격려 받음에서 오는 평화로움과 안정감으로 부드럽게 변한 모습을 바라 볼 때입니다. 비록 이분들이 퇴원 후 며칠 만에 술병을 든 만

취된 모습으로 병원 모퉁이에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저의 경험은 외래진료를 찾는 50% 가까운 많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연민을 갖게 합니다.

최근 의료진과 직원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 고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환자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 환자 등 복지병원이 한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의 장이 되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어느 문화든, 사회 그룹이든 평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가복지병원이 기적처럼 걸어온 28년이란 시간 앞에서 우리는 성취가 주는 환

상,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선 이 유혹의 시대에... 그냥 사랑하고 그냥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시대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상에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 감사의 마음



# 주저않은 나를 일으키고 다독여 준 복지병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걷다



글 · 환자 양○○

저는 한국에서 막노동 일로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만 머물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서 3개월마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언젠가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갔지만 참으며 지냈습니다. 2016년 4월 5일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서 수술을 받고 두 달여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운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저를 돌봐 줄 형

제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찰서에서 나를 붙들어 가라고 해도 붙들어 가지 않았습니니다.

5월 30일 저는 복지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병원차에 누운 채로 이곳에 실려 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가 없고, 침대를 올려 줘야만 먹을 수 있고, 대소변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죽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조금씩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온지 6개월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도 받게 되었고,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희망이 있다, 다리에 힘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물리치료 선생님도 꾸준히 운동하면 걸을 수 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신문에 제 사연이 실렸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어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바로 발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형제들도 나를 돌보지 않고 가버려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저를 이렇게 보살피고 걷게 해 주셨으니 무슨 말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 분들께 욕도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도 이제 돌아다 보이고 죄송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동안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다

글 · 환자 알리크 누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떠나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남동생 '알리크'도 누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한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오던 어느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동생이 3층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음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열흘이 넘도록 그저 집에서 누워 앓기만 하다

가, 주변의 권유로 산재처리를 받아 두 달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며 병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서 뇌출혈, 허반신 마비 부동증후군,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4단계, 편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동생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고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요양 병원으로 옮겨 동생은 기나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다. 욕창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또한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3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외에도 딸과 조카들까지 한국으로 와 돈을 벌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지만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양 병원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17년 여름, 성가복지병원을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어 동생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복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던 희망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가 힘들어서 거부하면 쉽게 포기했습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아 점점



팔이 굳어가고 그대로 두었고, 식사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복지병원에서는 환자가 힘들다며 물리치료를 거부하면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다독이고 지지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복지병원에 올 당시엔 팔도 들어 올리지 못하고 호스로 관급식을 해야 했던 동생이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말도 잘하고 휠체어에 탈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면 마치 기적을 보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음을 크게 느꼈습니다. 동생이 이곳에 입원하고 나서 저도 보다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병원비의 부담에서 벗어나 동생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고향 집에서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주민 센터 에서 집수리를 하는 데 후원도 해주셔서 집으로 갈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병원이 아니었다면 동생은 영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리셨던 고령의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동생도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합니다.

복지병원에 와서 이 병원이 하느님께서 계신 병원임을 느끼며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을 보살펴 주시는 의료진과 수녀님들, 봉사자들을 보며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청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동생과 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이곳에서 배운 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퇴원환자 이정자님이 중국에서 보낸 편지



계시관 앞에 멈춰선 의사, 간호사, 수녀님, 봉사자, 환자분들...

삐뚤 삐뚤 정성껏 연필로 쓴 편지와 사진을 바라보며, 가족들 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이정자님 모습에 성가복지병원 공동체 모두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은혜로우신 수녀님께

글 · 퇴원환자 손태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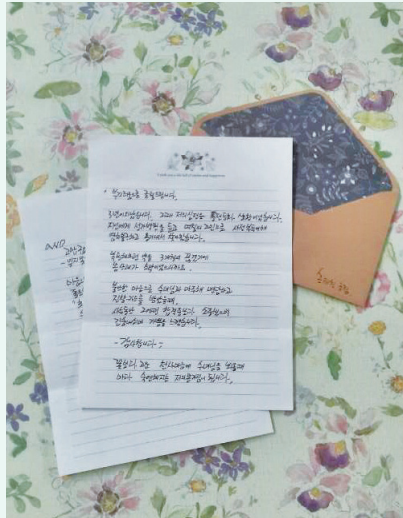


부끄러움으로 글을 드립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성가병원을 소개받았고,  
 몇일을 고민하다가 엄치불구하고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복용 해오던 약이 3개월 가량 끊겼기  
 에 몸 상태가 최악이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수녀님과 마주해 면  
 담을 받고, 진찰카드를 받았을 때, 사  
 는 동안 그 어떤 합격증보다 소중했으  
 며, 긴 숨 내쉬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병원 소식



2018. 02. 28.  
모의소방훈련

2018. 03. 02.  
제 9대 병원장  
김미재(아모스)  
수녀 취임

2018. 03. 07.  
산업안전 보건교육

2018. 03. 31.  
'사랑의 쌀' 기증(전국여성법무사회)



2018. 04. 01.  
은인 분들께 '부활맞이' 감사인사

2018. 04. 26~30.  
필리핀 의료봉사



# 사진으로 보는 병원 소식



2018. 05. 28~29/06. 04~05.  
1·2차 직원피정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2018. 05. 03.  
성모의밤



2018. 05. 14.  
자원봉사자 연수

2018. 05. 14.  
뱃지 수여식



2018. 6.  
광주교구(박찬규 미카엘, 유엘림 요한비안네), 의정부교구  
(김준용 사도요한, 안민재 필립보) 신학생 병원실습 파견



2018. 07. 06.  
주한 르완다 대사 방문



2018. 7.  
청원자 실습파견(쥘 데레사, 홍유리 파라,  
머 마리아, 최선희 루치아)



2018. 07. 20.  
개원 28주년 기념 미사 /  
근속상 수여식



2018. 09. 04.  
'사랑의 짜장면' 나눔  
(강동무료중식 봉사회)



2018. 09. 11.  
기부금 전달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2018. 09. 15.  
무료급식소 '쉼터' 물품후원  
(서울장충라이온스클럽)



2018. 09. 19.  
영훈초1-1  
'나눔반'  
추석맞이 방문  
후원금 &  
감짜공예 &  
떡 나눔



# 사진으로 보는 병원 소식

**추석연휴 수녀님들의 주방 봉사**

**2018. 09. 22.**  
환자분들께 추석선물 전달 (양말 & 약과)

**2018. 09. 24.**  
한가위 날 '쌈터' 무료 급식소 봉사(마음이 봉사단)

**2018. 09. 28.**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42주년' 우수 봉사자상 수상하신 김혜자님

**2018. 10. 17.**  
호스피스 환자 & 가족 & 봉사자 '성바오로 가정 호스피스센터'로 가을나들이

**2018. 10. 22.** 직원 가을소풍

**2018. 11. 08.** 사별가족 모임

**2018. 11.** 대전교구 신학생 (김현수 프란치스코) 실습파견

**문화생활**  
한달에 한번 '환자를 위한 영화상영'



# 알려드립니다

## 2017년 환자 진료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17년	973	29,656	30,629	14,496	104
1990년~2017년	26,378	531,291	557,669	657,125	3,015

##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2,587,975	사업비(진료재료비 외)	1,767,328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270,979	인건비	838,768
		관리운영비	442,432
		업무추진비	30,070
기타 수입	258,738	재산유지조성비	39,094
계	3,117,692	계	3,117,692

## 후원 방법

자동이체(CMS) :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지료 : 지료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 시 : 7529458

온라인 계좌이체 :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체국 013474-01-000253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신한 01168-12-000238
- 하나은행 172-890000-39004
- 농협 051-01-184347
- SC제일은행 226-20-412973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 후원 안내

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회원님과 명의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후원회(Tel 02-940-1501, 1502 Fax 940-1545, 메일 bobinhuwon502@daum.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보내 주시는 각종 생활필수품(의류, 쌀, 떡, 빵, 채소, 음료, 과일, 고기, 휴지, 세제)과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을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 아침·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소식은 홈페이지(www.sgbokji.or.kr)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huwon\_s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